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자) 사순 제 5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4 월)

복음화 지향: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좋으신 주 하느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가련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3,16-21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리라.>

화답송 시편 126(125),1-2ㄱ-2ㄴ-3.4-5.6(◎ 3 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3,8-14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을 것입니다.>

복음 환호송 요엘 2,12-13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1-11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영성체송 요한 8,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영성체 후 묵상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에 이르도록 합시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사순 제 5 주일

♣ 전례 시간의 의미 : 사순 시기-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 ♣

삶을 살아가며 누구나 힘겨움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메마른 광야라도 어딘가에 하나쯤 솟아나는 샘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길을 나서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메마른 삶의 광야에서 다시 샘물을 찾아 나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순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는 내 삶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메마른 광야를 느끼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광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샘물을 찾아 나서는 시기입니다. 내 삶이 마냥 힘겹고 슬픈 것만은 아님을, 그래서 그 고통과 두려움 안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바로 사순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에서부터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 이뤄집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순 시기가 되면 모든 신앙인들은 단식과 자선과 기도를 통해 부활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잠시 멈춰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는 더 가볍게 살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며 살기를 연습하는 날들입니다. 내 삶의 메마른 광야에 주목하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생명의 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부활을 맞이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물을 기쁘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 사순 제 5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그리스도와 간음한 여인'
구에르치노 작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호주 홍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가정 및 개인별로 기도와 선행, 절제를 통해 정성스럽게 모으신 금액을 4월17일 부활절 미사 중 봉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봉헌된 모금액은 우리 공동체의 사회복지 예산 일부와 함께 아래 후원기관에 전달됩니다. 많은 교우분들의 관심과 정성스런 참여를 바랍니다.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자들의 구호를 위한 카리타스 모금 운동: <https://tinyurl.com/2zpa4txv>

※ 호주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비니스 모금 운동: https://www.vinnies.org.au/page/Find_Help/Flood_appeal/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교황님의 서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2022년 3월 25일 로마 시각 오후 6시 30분)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티 없이 깨끗한 성모 성심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봉헌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봉헌 예식에 대한 서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한 이 예식에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셨으며, 형제적 일치 안에서 봉헌 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이 봉헌기도는 현재의 참담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통하여 고통에 시달리며 폭력의 종식을 탄원하는 모든 이의 괴로운 부르짖음을 하느님께 올리는 보편 교회의 몸짓이자 평화의 모후께 우리 인류 가족의 미래를 맡겨 드리는 기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오늘 주일 미사 전 십자가의 길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 봉헌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거룩한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 형제적 일치 안에서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절히 한마음으로 올리는 이 탄원의 기도예 모든 교우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황님 서한 전문 링크: <https://cbck.or.kr/Notice/20220186?gb=K1200>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https://cbck.or.kr/Notice/20220187?gb=K1200>

캔버라·골번 대교구 다문화 미사 (Multicultural Mass) 안내

일시: 2022년 4월 24일(부활 제 2주일) 오전 11시 (※당일 우리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장소: St Christopher's Cathedral, Corner of Canberra Avenue and Furneaux St, Forrest ACT 2603

※ 미사 후 다문화 공동체별로 음식 나눔이 있을 예정이고, 다문화 미사 참석 복장은 한복을 권장합니다.

2021년 다문화 미사 후기: <https://www.catholicvoice.org.au/hidden-treasures-thanked-for-their-riches/>

캔버라·골번 대교구 성유 축성 미사 (Mass of the Chrism) 안내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 St Christopher's Cathedral (크리스토퍼 주교좌 성당)

2022년 어머니의 날 행사 참가자 모집

올해 어머니의 날(5월 8일 주일)을 맞이해 여성 교우님들을 위한 와이너리 점심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소공동별로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아직 소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우님들은 서은주 데레사 자매님(총무)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성 교우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와 장소: 5월 6일(금요일) 오후 12시, Four Winds Vineyard

점심(피자) 및 차량 지원(성당에서 함께 출발, 별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활 판공성사 안내(3월 6일~4월 3일)

성사 순번(권고) : (4월 3일) 루카반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주일 미사 30분 전 시작)

순번 : (4월 3일) 사목회

| 사순 제 5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③

택배로 사시기 전에 근처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확인해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⑩

겨울철 난방온도 2℃ 낮추기
→ 11,90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주일 미사 전 십자가의 길 기도 마지막 부분에 해설자의 안내에 따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저희의 이 간청을 들어주소서.
바다의 별이신 어머니, 저희가 전쟁의 풍랑 속에서 난파되지 않도록 하소서.
새 계약의 퀘이신 어머니, 화해의 계획과 길에 영감을 주소서.
"천상의 땅"이신 어머니, 세상에 하느님의 화합을 주소서.
증오를 없애시고, 복수를 진정시키며, 용서를 가르쳐 주소서.
전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핵위협에서 세상을 보호하소서.
목주기도의 모후, 저희 안에 기도와 사랑의 필요를 일깨워 주소서.
인류 가족의 모후, 저희에게 형제애의 길을 보여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에 평화를 주소서.

□ 주일 미사 참례자수

3월 20일	성인 31 아이 7	3월 27일	성인 42 아이 15
--------	------------	--------	-------------

□ 우리들의 정성 (3월 26일(토)~4월 1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교무금 : \$520 (11가정) / 봉헌금 : \$23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4월 3일, 사순 제 5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4월 10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3일) 마태오반 → (10일) 루카반 → (17일) 요한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4월 3일) 요한반 → (4월 17일) 모든 반(※ 부활 대축일 음식나눔) → (5월 1일) 루카반 → (15일) 마르코반 → (29일) 마태오반

□ 최신 코로나 19 방역수칙

우리 공동체에서는 교구의 최신 방역 방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하고, 성당 출입 시 QR 코드 스캔, 체온측정도 중단하였습니다. 손 세정제는 향후에도 자유로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성당 입구에 비치해 놓으며 미사 후 성당 뒷정리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합니다.

♡ 이서연 율리아 어린이(6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